

# '전주 올해의 책' 함께 읽는 기쁨 나눠요

### '시민 독서릴레이' 첫 주자 100명 선착순 모집... '학교 독서릴레이' 도 실시

전주시는 '2024 전주 올해의 책'을 가족, 친구, 이웃 등과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독서릴레이'의 첫 번째 주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독서릴레이는 전주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주름 때문이야(서영 저, 다그림책(키다리)) △그날 밤 우리는(이나영 글·해랑 그림, 시공주니어) △느티나무 수호대(김중배 저, 들레개) △계절은 짧고 기억은 영영(이주혜 저, 창비) 등 총 4권의 책을 릴레이로 읽어나가는 활동으로, 시는 일반시민과 학교를 대상으로 첫 주자를 모집한다.

우선 '시민 독서릴레이'의 첫 주자는 오는 22일까지 전주독서대전 누리집(www.jbook.kr)에서 선착순으로 모

집한다.

첫 주자는 신청 부문 도서를 희망 시립도서관에서 수령하고 책을 읽은 뒤 전주독서대전 누리집 내 '독서릴레이 코너'에 한 줄 평과 다음 주자 알림을 남기면 된다.

이후 다음 주자도 같은 방식으로 14일 이내에 도서를 전달하면 된다. 독서릴레이는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마지막 주자는 운영 종료일 전까지 가까운 시립도서관으로 도서를 반납해야 한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학교 독서릴레이'는 학급별로 학생들이 릴레이로 읽는 활동으로, 시는 전주시 소재 초등학교(4~6학년) 3개교와 중·고등학교 2개교를 선착순으로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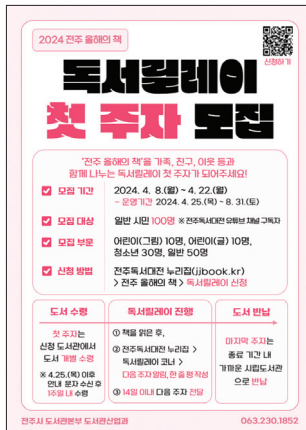
집한다.

선정된 학교에는 독서릴레이 도서가 최대 30권씩 제공되며, 참여 희망 학교는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khy18245@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강준 도서관본부장은 "이번 독서릴레이를 통해 가족, 친구, 이웃과 '2024 전주 올해의 책'을 함께 읽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며 "독서 문화를 확산하고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4 전주 올해의 책'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도서관본부 책문화산업팀(063-230-185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



**2024 전주 올해의 책**

## 독서릴레이 첫 주자 모집

전주 올해의 책을 가족, 친구, 이웃 등과 함께 나누는 독서릴레이 첫 주자 모집

- 모집 기간: 2024. 4. 8 (화) ~ 4. 22 (토) / 운영 기간: 2024. 4. 25 (화) ~ 8. 31 (토)
- 모집 대상: 일반 시민 100명 ※ 전주시립도서관에 방문 신청
- 모집 부문: 어린이(2권) 10명, 어린이(2권) 10명, 청소년 30명, 일반 50명 /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jbook.kr) > 전주 올해의 책 > 독서릴레이 신청
- 신청 방법: 도서관 누리집(jbook.kr) > 전주 올해의 책 > 독서릴레이 신청

도서 수령	독서릴레이 진행	도서 반납
최초 주자: 신청 도서관에서	① 책을 읽은 후, ② 전주독서대전 누리집 > 독서릴레이 코너 > 다음 주자 알림 남기기	최종 주자: 가까운 시립도서관으로 반납

전주시 도서관본부 도서관운영팀 063.230.1852

전주시는 '2024 전주 올해의 책'을 가족, 친구, 이웃 등과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독서릴레이'의 첫 번째 주자를 모집한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는 8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귀농자와 은퇴자, 예비 농업을 대상으로 '2024년 전주시 귀농생활 입문교육'을 운영한다.

## 안정적 영농 정착 돕는다

### 전주농기센터, 6월 5일까지 귀농생활 입문교육 실시

전주시가 초보 귀농·귀촌인과 예비농업인의 농촌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의 장 마련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는 8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귀농인과 예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귀농자와 은퇴자, 예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4년 전주시 귀농생활 입문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신규 농업인과 도시지역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농업·농촌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4시간씩 총 15회(64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수강생들은 △작물 재배 기초이론과 현장실습 △귀농보급자료(주책, 농지) △귀농 성공·실패 사례 △귀농 선도농가 벤치마킹 △농기

계 안전 사용법 및 조작 실습 △귀농 정책 및 귀농 사업계획서 작성법 △농업 관련 기초 법률 등 귀농 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론과 실습, 현장 교육을 통해 배우게 된다.

이와 관련 이날 첫 강의에는 박후임 진안군 귀농귀촌 협의회 이사가 강사로 참여해 '귀농생활 갈등관리'를 주제로 강연했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귀농·귀촌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예비 귀농인과 신규 농업인에게 기초 영농기술뿐만 아니라 귀농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시정연구원, '정책 브리프' 창간호 발간

### 현안·경제산업·사회문화·도시공간 등 분기별로 발간 예정

전주시의 정책연구기관인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이 'JRI 정책 브리프' 창간호를 발간하며 '전주시 싱크탱크'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보는 전주시 도시공간 변천사 연구' 결과를 담은 정책 브리프 창간호 및 향후 계획을 소개하는 정책브리핑

을 가졌다.

'JRI 정책 브리프'는 이번 창간호를 시작으로 전주시 현안과 경제산업·사회문화·도시공간·탄소중립 등 다양한 주제로 분기마다 발간될 예정이다.

이번 창간호에서 먼저 전주시가 거점도시로써 도시공간 구성과 주변 시·군과의 연계를 고려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본격적인 새만금 개발에 따라 전주시가 배후도시로써 서부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생활권 형성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전주시와 새만금의 역할 분담 및 연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개발이 억제된 도심부의 기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며, 제도적 지원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도모해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도시의 중심성을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시설공단, 교통약자 인식개선 교육 진행

전주시설공단이 교통약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전주시 교통약자 특별운송 업무를 담당하는 '이지콜' 운전원들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했다.

8일 공단에 따르면 전날 전북 안주 소양면에 위치한 전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서 이지콜 운전원 20여 명이 교통약자 인식개선 교육에 참석했다.

지난달 9일에 실시된 1회차 교육에 이어 두 번째 교육으로 올해 10월까지 총 4차례 교육이 진행되며, 이지콜 운전원과 임차택시 사업자 등 총 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공단은 교통약자 특장차량 '이지콜' 택시 58대와 교통약자 셔틀버스 '어울림' 버스 4대, 시각 및 신장 장애인 등 비휠체어 교통약자 전용 임차 택시 25



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운전원들은 교통약자 인격 존중과 이동권 보장, 특별 교통수단 안전장치 사용법,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 처리 요령, 교통약자 친절서비스 등을 배우고 익혔다.

구대식 이사장은 "이번 교육이 교통약자의 인격을 더욱 존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희망나눔봉사대, 주거환경개선 봉사 펼쳐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나선 '희망나눔 봉사대' (이하 봉사대)는 지난 7일 전주시 중화산2동 중증질환을 가진 부자 가정에 제139호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회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화산2동 다세대연립주택인 중증질환가구에 도배 및 장판 작업, 싱크대, 거실 샷시 교체 등 노후화된 집 내부를 깨끗하게 정비했다.

한편, 봉사대는 전주에서 활동하는 인테리어·실내건축공사업체 관계자들이 모여 만든 봉사단체로 매월 복지 사각지대 및 긴급주거 복지불편이 필요한 곳에 대해 지역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 봉사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지내시는 가정을 보며 한미음 한뼘을 모아



집수리봉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이웃들에게는 재능기부를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김용태 중화산2동장은 "휴일에도 봉사에 참여해주신 대원들이 분담, 따뜻한 선물을 주심에 감사하다"며 "함께해서 모두가 행복한 중화산2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시, 위기가구 발굴 시민에 포상금 지급

전주시가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을 발굴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 가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위기 상황에 놓인 취약가구를 발굴해 동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포털을 통해 신고한 위기대상자가 복지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전주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이웃이 위기 상황에 놓인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포털(www.bok.go.kr)의 복지도움(이웃도움요청에 대상 가구를 '도움요청' 등 등록하면 발굴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한 조사·상담 후 서비스를 지원·연계하

게 된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발굴 시민에게는 신고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동일 신고자의 포상금 한도는 연간 30만 원이다.

단,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위기가구 신고 의무자와 공무원,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등의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단절, 소통의 부재로 위기 상황에 빠진 이웃에게 도움이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함께 살기 좋은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인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풍각** **내아**